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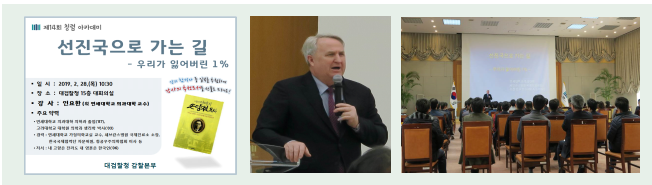


간추린 청렴 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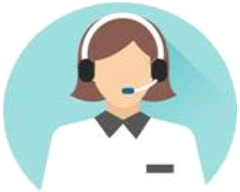
[1] 감찰본부, 제14회 청렴아카데미 실시

대검찰청에서는 2019. 2. 28.(목)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여 '청렴을 저해하는 요소와 극복 방안'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* 강사 :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요한



[2] 감찰본부, '2018년 4분기 클린콜 우수직원' 선정



대검찰청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담당자 및 전화 설문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린콜 우수직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.

늘 친절할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 서울남부지검 김지우 수사관 등 6명의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^^

[3] 마산지청, '청탁금지법 유의사항' 전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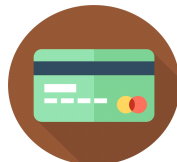
마산지청(지청장 양요안)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 관련 청탁 금지법 유의사항을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교육하였습니다.



청탁금지법과 함께 유익한 명절을 보냈을 마산지청의 자율적인 청렴 활동 소식이었습니 다 ㄹ

[4] 부산서부지청, '정부구매카드 점검' 지속 실시

부산서부지청(지청장 김덕길)에서는 정부구매카드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적정사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


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산서부지청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^^



칭찬합니다

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 주인공은

서울중앙지검 **정준민 실무관** 입니다.

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에서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준민 실무관은 급하게 찾아와 압수 당시 이미 부서진 핸드폰 속 파일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친절하게 응대 하였을 뿐 아니라 잘 켜지지 않는 핸드폰에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열람등사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.

아래는 정준민 실무관에게 온 감사편지의 일부입니다.

... 이것 때문에 저녁도 거르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해 주셨고 나머지 필요한 파일들까지 주말에도 출근하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람등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.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드립니다...

... 검찰에 좋지않은 불신이 있었는데 정준민 선생님과 형사 증거과 직원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히 해주셔서 검찰도 이렇게 좋게 변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...(감사편지 中...)

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

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

"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"

- 영화 '동주' 中 -

따뜻하지만 묵직한 여운을 주는 영화 '동주'(2016년 개봉/ 감독 이준익) 입니다.

3월의 추천영화

동 주



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, 동갑내기 고종사촌인 윤동주 시인(강하늘)과 독립운동가 송몽규(박정민)가 한 집에서 자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하기까지의 짧은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

위 대사는 치욕적인 시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과감히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문학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윤동주에게 시인 정지용이 건넨 말입니다.

바쁜 일상 속 자신을 되돌아보고
반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
한 번 쯤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

청렴 상식이 쑥쑥

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고 합니다.

버려진 개미집이나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멜론씨앗을 넣은 뒤 기다리면 원숭이가 다가와 구멍안의 미끼를 한 가득 움켜쥔 채 손을 빼려고 합니다.

하지만 커져버린 주먹은 구멍에서 빠지지 않고 당황한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잡혀 목숨을 잃게 됩니다.

딱 쥔 주먹을 조금만 펴면 도망칠 수 있지만 한 움큼 움켜쥔 탐욕을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.

여러분은 위 이야기를 보며 어리석은 원숭이가 안타까우셨나요?

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도 권력과 재물, 승진에 대한 욕심으로 원숭이와 비슷한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



知足可樂(지족가락) 이요 務貪則優(무탐즉우) 나라.

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
탐욕을 채우데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.

위 문장은 명심보감 안분(安分)편의 한 구절로

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받아들여 만족하지 않고 분수를 알지 못한 채 내 몫이 아닌 것을 탐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.

만족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.

맑은 정신, 건강한 가족, 편안한 집, 평범한 직장...

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?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

청렴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스웨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 강대국이 된 근간이며 '행정의 모든 것은 공개해야 한다'는 원칙 속에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?

- ① 정보공개 제도 ② 옴부즈맨 제도

※ 힌트 : Monthly청렴 2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 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- ★ 응모기간 : 2019. 3. 18.까지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2월 정답은 ③ **어서우** 였습니다.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^^



축!
당첨

이○○(부산서부), 하○○(의정부), 김○○(중앙),
문○○(서울고), 강○○(대전), 김○○(수원),
나○○(대검), 김○○(울산), 이○○(북부), 이○○(외부)

민원인의 목소리

사전 통화 후 방문 하였는데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며 다른날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.



내가 민원인 이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?
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처리 절차나 준비서류가 생소했을
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.

민원 안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, 친절하게 잘해 주고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어 불편함 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



남원지청 열람등사(확정등)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. ♪

